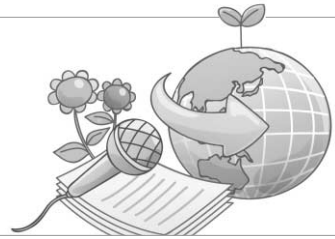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홍콩여행 갈 때 육류, 가금류 반입 금지

인천공항세관은 홍콩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육류와 가금류는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세관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집단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이에 대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홍콩총영사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동절기에 범람하는 사스,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육류 및 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식품류 반입시 검사비율도 상향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개인소비 목적의 육류, 가금류는 검역중이나 허가증이 없을 경우 몰수 처분되며, 특히 허가증 없이 살아있는 조류를 반입할 경우 바로 기소처분 될 수 있으므로 홍콩을 경유하거나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최근 홍콩공항 및 육로통관장에서 육류 및 가금류를 무단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홍콩 언론에 언급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가금류 뿐 아니라, 과일·식물·씨앗 등 식물의 종자 등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대부

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합뉴스

브라질

2008년에도 계속수출 호조 전망

2007년말 브라질 양계경영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는 ① 옥수수 수출의 급증 ② 중소가축 경영이 많은 동남부와 남부에서의 생산량 감소 예상 ③ 라니노 현상에 의한 가뭄으로 예정 수확량 달성 우려 등으로 2008년 1월 옥수수 부족을 우려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하순 브라질의 브로일러용 초생추 생산자협회(APINCO) 및 브라질 양계연합(UBA)은 “2008년 1월의 단경기 국내 재고와 2008년도(7월~익년 6월) 수확량은 강수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의 생육이 순조롭다”라고 말했다.

2008년 계속의 국내 생산에 있어서는 ‘2007년의 브라질 계속 생산량은 1,027만톤(2006년 935만톤, 전년대비 9.8% 증가)으로 예상하고 더욱이 국내 소비량 확대가 기대되어 2008년은 1,070만톤(전년대비 4.1% 증가)’을 예상하고 있다.

〈표〉 생산자 판매가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옥수수(60kg)	17.5	15.7	14.1	19.5
	100	90	80	112
브로일러(수수)	1.48	1.36	1.17	1.55
	100	92	79	105

※ 자료 : 브라질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 주 : 상단은 가격(레알), 하단은 2004년 가격을 100으로 한 경우의 변화를

수출에 있어서는 ‘다리고기의 수요가 많은 중동이나 계육수요가 신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을 중심으로 수출신장이 기대되지만 대폭 증가는 어렵다’ 는 예측이다.

사료가격 상승의 영향에 있어서는 ‘옥수수 생산자 판매 가격과 브로일러 생산자 판매 가격 상승률이 거의 같아 생산코스트는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사료가격이 더욱 상승할 경우 2008년의 생산 확대를 제한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의 계육관계자는 수요 신장으로 계육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료의 자급이 가능한 브라질에 있어서도 사료가격 상승은 계육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AW

미국

닭 50마리 ‘고교 습격사건’ 학생들 혼비백산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난데없는

닭 50여 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2월 1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총 50여 마리의 암·수탉이 필라델피아 노스이스트 고등학교에 날아들었다. 피곤한 월요일 등교 길에 뜬금없이 닭들을 마주친 학생들은 기겁을 했다.

학교 대변인 페르난도 갈라드는 “도대체 이 많은 닭들이 어디서 왔는 지 모르겠다”며 “지금쯤 농장 주인은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닭들은 3,6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다. 학교 바닥에는 닭털과 배설물이 가득해 대대적인 청소를 벌여야 했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경찰은 닭들이 주인을 찾기 전 까지 혹시나 괴롭힘을 당할까 감시 테이프를 가동하고 있다. 닭들을 ‘감히’ 못살게 구는 사람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 조인스

치사율 높은 AI 예방 새 백신 개발중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종 감염을 막는 새로운 백신이 미 연구팀에 의해 개발, 임상시험 중이다.

지난 2월 1일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PLoS ONE’ 저널 최신호에 밝힌 연구결과 가장 흔하며 또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막는 백신이 개발, 임상시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쥐를 대상으로 연구팀이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백신이 쥐에 있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며 'H5N1' 바이러스 감염 후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현재 이 같은 백신이 인체 대상 초기 단계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다른 조류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달리 인체 면역계가 실제 바이러스로 인지하지만 복제에 대한 유전적 정보가 없어 인체 백신용으로 더욱 안전한 'VLP' 이라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사용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스시스

싱가포르

동충하초 함유된 계란 개발

싱가포르에서 동충하초가 함유된 계란이 개발되었다고 비즈니스 타임즈가 지난 2월 11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생명공학회사 AP-뉴트리팜(AP-Nutripharm)은 동충하초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를 닭에 사료로 먹여 동충하초가 함유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계란은 또 보통계란보다 콜레스테롤이 30% 적다고 한다.

뉴트리팜사는 동충하초를 자연상태에서 얻

으려면 보통 1년이 소요되지만 이를 9.5일만에 거둘 수 있는 기술을 2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해 특허를 얻었으며 이를 닭의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충하초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겨울에 곤충에 침입하여 기생하고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는 것으로 폐, 신장기능을 강화시키고 항암, 항박테리아,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싱가포르 dpa=연합뉴스

홍콩

AI 공포로 식품도매시장 소독 실시

홍콩은 AI가 의심되는 폐사된 야생조수를 발견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두개의 식품도매시장을 소독했다고 밝혔다.

그 새는 10일 가금류 도매시장 근처의 식품도매시장에서 발견됐으며, 정부관리는 도매시장에 대한 소독과 예찰 실시 및 판매자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 로이터

인도네시아

AI 샘플 공유

인도네시아에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연구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 샘플

플공유를 기꺼이 하겠다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밝힘에 따라 12개의 AI 바이러스 샘플을 WHO 실험실에 보냈다고 방역관계자가 발표했다.

AI 최악의 발생국인 인도네시아는 현재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 AI 샘플을 통해 후진국이 보다 쉽게 백신을 얻을 수 있도록 AI 샘플 공유에 제한을 두었다.

“AI 샘플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바이러스 변형연구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는 강조하면서 지난 2월 20일 12개의 AI 샘플을 보냈다.

- 로이터

인도

AI로 양계산업 심각한 피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현재 인도에서는 양계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도 일간지 ‘파이오니어’가 지난 2월 15일 보도했다.

서 벵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가금류 산업의 손실이 하루 5억 루피(약 119억원), 한 달에 총 150억 루피(약 3,5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닭이나 달걀을 원래 가격의 30% 할인된 헐값에 팔고 있다.

양계수출량은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1% 미만인 30억 루피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산 양계식품을 수입해온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입을 금지해 인도 양계농가들의 타격이 심각하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서 벵골뿐임에도 전체 양계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양계농가들은 발병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뉘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역설정을 망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양계무역가능구역을 설정하면 경계 지역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개월간은 수출금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인도의 양계업은 이미 70% 정도 문을 닫았고, 스리랑카, 아랍 에미리트, 부탄, 네팔 그리고 오만과 같은 나라들은 인도를 향한 금수 조치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다. 양계업자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다른 가금류도 키울 수 없어 생계에 대한 타격이 크다.

양계전문가들은 가금류에 대한 백신접종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농장등록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인도의 상황에서 실제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인도와 이웃해 있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에는 양계농가 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인도에서는 농장은 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보험에 가입하



고 있지 않다.

서 벵골 19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양계 식품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몇몇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인도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서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내일신문

AI로 셔틀콕 부족, 국제배드민턴 대회 위기

중국과 인도, 동남아 등에 만연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셔틀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인도가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인 배드민턴 그랑프리대회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월 15일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국제배드민턴연맹(IBF)은 최근 인도배드민턴협회(BAI)에 공문을 보내 오는 4월로 예정된 '2008 인도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BF가 대회 취소 방침을 밝힌 것은 인도에 셔틀콕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셔틀콕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오리 깃털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인도의 셔틀콕 생산도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

사상 처음으로 자국에서 배드민턴 그랑프리 개최할 예정이던 BAI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인도 오픈은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인도 선수들이 안방에서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

트를 쌓고 전력을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BAI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V.K. 베르마 BAI 회장은 인도 축산국은 물론 보건부와 농림부, 스포츠국 등에 셔틀콕용 오리 깃털 수입 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르마 회장은 "셔틀콕이 부족해 대회를 치르지 못한다는 건 수치"라며 "유명 제조업체의 중국산 셔틀콕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의 일방적인 깃털 수입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뉴델리=연합뉴스

가금류의 판매 금지 철회

동부 인도지역의 정부관리는 지난 2월 12일 일주일 전에 취해진 가금류의 판매 및 이동 금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H5N1이 발견된 서부 벵갈 지역에서 추후 전 지역으로 판매금지를 실시했으나, AI 통제에 이와 같은 제한을 철회한다고 동물자원부 장관이 발표했다.

- 로이터

이스라엘

깃털 없는 블로일러, 시장도입단계 접근

사업자와 미디어의 주목을 모은 깃털 없는 블로일러(featherless broiler)가 최초 발표




로부터 4년을 경과한 오늘 고온 환경 하에서의 사용을 상정한 상업화에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약 4년 전, 이스라엘 유전학자가 깃털 없는 블로일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뉴스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세계 양계 산업에 임팩트를 남기는 결과는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과학자인 에비그더 카하너 박사(Dr. Avigdor Cahaner)는 온난습윤기후국에서 특히 계종성적이 기대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유전학 진보와 그 후 계속적 실험으로 카하너 박사는 전반적 성적을 개선시켰다고 했다. 카하너 박사는 온난 습윤 기후에서 깃털 없는 브로일러의 경제적 장점을 뚜렷하게 확신하고 있다.

많은 브로일러 생산농장은 온난습윤한 아시아나 미국, 아프리카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표준적 상업용 브로일러는 유전학적 장점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 낮은 환경온도를 요구하고 있다. 카하너 박사는 고온 상황 하에서는 표준적 브로일러 깃털이 닭의 체내에 축적된 여분열을 효과적으로 방산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실제 브로일러의 성장률 저하로 육량, 육질 모두 저하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많이 폐사되어 버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네거티브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로 전력 에너지 소비에 의존한 냉각장치나 환기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그것은 코스트를 상승시켜 브로일러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 WP 2008. 2. 22

‘월간 닭고기’ 광고계재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국내 계육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닭고기 전문지입니다.
‘월간 닭고기’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편집부(031-707-572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닭고기 지면별 광고금액〉

[2008년 3월 현재]

광고 게재면	광고료(원)	비고	
표2(표지 2면)	900,000	칼라	※ 부가세 없음. ※ 연간 계약시 광고료 조정 가능 ※ 광고계재시 책 증정
표3(표지 3면)	800,000		
표4(표지 4면)	1,000,000		
표2연결면(대면)	700,000		
표3연결면(대면)	600,000		
내지	500,000		

광고문의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